

6 月中 世界에너지動向

I. 石油市場

(韓國動力資源研究所 제공)

1. 消費動向

○經濟活動不振, 消費節約, 石油의 代替에 너지化 등으로 石油消費가 減小하여, 世界的으로 約 2 ~ 3 百萬B/D의 供給過剩 持續

-1/4分期中 主要先進國 石油消費 減小 示頭

(前年同期對比)

美國: 消費(△6.2%),

輸入(△20%)

日本: 消費(△8.2%),

輸入(△1.1%)

英國: 消費(△14.2%)

프랑스: 輸入(△16%)

西 獨: 輸入(△17.9%)

(資料: AP-DJ)

2. 生産動向

○5月中 OPEC산유량 크게 감소
-年初의 25百萬B/D에서 22百萬B/D로

(最近 主要國 産油量 推移)

(單位: 百萬B/D)

國 名	'81.5	'81.1	'80平均
O P E C	22.00	24.80	27.20
인도네시아	1.45	1.64	1.56
쿠웨이트	1.25	1.76	1.70
리비아	1.20	1.60	1.78
나이지리아	1.00	2.09	2.10
베네수엘라	2.00	2.20	2.20
U A E	1.45	1.62	1.70
사우디	10.30	10.26	9.90
이란	1.80	1.19	1.50
이라크	1.00	0.65	2.80
英國	1.86	1.77	1.59
멕시코	2.70	2.17	2.00
美國	8.50	8.50	8.65
소련	12.20	12.20	12.00

資料: PIW, AP-DJ. Petroleum Economist

▲公式價格 引下狀況

(단위: 달러/배럴)

國 名	價格引下幅	備 考	
멕시코	4	Spot 價 格	
나이지리아	2~4		
英國	4.25		
에콰도르	3.80		
리비아	4		
알라스카 (SOHIO)	2		
소련	2		
말레이시아	0.70		
이라크	0.54		送油管 使用料 割増料 縮少 및 廢
카타르			
인도네시아			
북아프리카			

資料: AP-DJ. PIW

-消費減小로 고전하는 있는 各國의 石油業者들이 契約物量 縮少 또는 引受拒否

-사우디, 이란, 이라크를 除外한 10個會員國, 公式生産量에서 10%에 해당하는 1.3百萬B/D 減産을 決議

○그러나 이란, 이라크의 增産으로 實質減小量은 50萬B/D에 불과

3. 價格動向

○公式價格 引下事態

○現物市場價 大幅下落

-사우디 A-L公式價인 배럴당 32달러以下 水準까지 下落

-이스라엘의 이라크 原子力發電所 煤擊으로 中東의 情勢가 다소 緊張되었으나 現物市場 價格에 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음.

▲現物市場價格 狀況

(단위: 달러/배럴)

Arabian Light(API 34°) 32水準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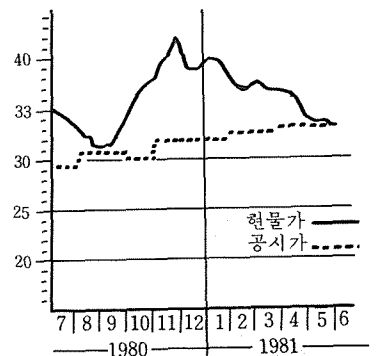
" Heavy(API 31°) 31水準

African Light(API 37°/40°) 33.5水準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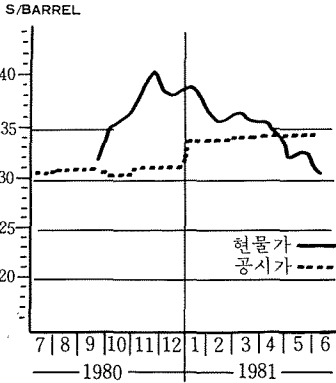
▲現物市場가격 推移

Mideast Light Crude-34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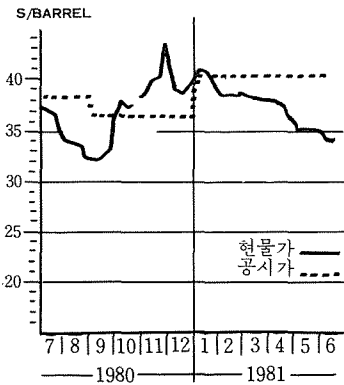
S/BARREL



Mideast Heavy Crude—31°



African Light Crude—37°/40°



資料：PIW

4. 消費国の 政府備蓄 増強, 民間備蓄 減小

○現物市場 弱勢를 利用한 政府備蓄 増加

- 美國：現物市場에서의 SPR(戰略石油備蓄)用 原油買入 増加
- 日本：海上原油備蓄을 当初計劃 (70萬Kℓ)의 3倍로 擴大

○高金利에 따른 在庫費用 増加로 民間石油業者들 既備蓄物量 売却

5. 石油製品 現物市場에서의 需要減退로 原油價下落에 도 불구하고 精油業者 損失 擴大

○主要國 精油工場稼働率 60~65% 水準으로 下落

○石油製品 現物市場價 原油價 以下로 下落

6. 政策動向

〈産油國動向〉

○5月25日 제네바에서 OPEC石油 相會議開催

- 今年 12月 아부다비會議時까지 OPEC原油價를 凍結하기로 決定

▲背景

- ① 사우디의 基準價油 引下努力과 高生産 維持
- ② 그 동안의 油價引上이 지나치게 高水準이었으며 現在の 供給過剩規模가 너무 크다는 것을 産油國則이 認識
- ③ 戰費調達을 위한 이란·이라크의 増産이 불가피해짐으로써 OPEC內的 強硬派立場弱화

—長期油價政策은 사우디案을 계속 研究·檢討하기로 함.

—사우디案：油價를 先進國 인플레이션率, 實質經濟成長率, 通貨價值變動率에 連動시켜 實質油價를 保障하려는 案

—사우디, 이란, 이라크를 除外한 10個會員國 10% 減産決定

—生産 및 價格政策에 대한 會員國間 異見 深化

—現石油供給過剩에 대해 別다른 對策을 提示하지 못함으로써 政策決定機構로서의 能力弱화를 露呈

○6月 1日 런던에서 Financial Times社가 에너지 專門家를 招聘하여 에너지供給會議 開催

—現在の 石油需要減小은 景氣沈滯에도 일부 原因이 있으나 대부분 消費國의 에너지 效率增進과 代替에너지開發등 構造의 變化에 基因한 것이며 앞으로 油價의 급격한 引上은 消費國보

다 産油國에 더 큰 打擊을 줄것임. 따라서 OPEC는 歷史的 轉換點에 直面해 있다고 John Lichtbrau氏 披露

—UAE石油相, 現石油市況으로 미루어 1982년까지 油價凍結을 主張

〈消費國動向〉

○6月15日 파리에서 世界에너지機構(IEA)會議開催

—世界石油市場은 계속 流動的인 旨을 強調하고 現在の 供給過剩에 대한 自滿을 警告

—石炭増産과 原子力利用擴大에 努力

—會員國은 80年中 石油消費 7% 節減, 石油輸入 12.6% 減小을 示顯하였으며, 계속 에너지 效率増大를 위한 努力 強調

* 81年 石油需要 47.5百萬B/D 予想, 80년에는 49.3百萬B/D 79年 51.8百萬B/D

II. 가스市場

1. 價格動向

○石油市場 弱勢의 영향이 波及되어 弱勢基調 示顯

—LPG輸出價格 大幅下落

* 사우디：5月 20日자로 對日本 LPG供給價格을 噸당 295 달러에서 40달러 引下

2. 供給展望

○1980年代中 OPEC의 LPG供給能力 3倍 増加로 自由世界 LPG 供給過剩 展望

▲ 自由世界 LPG供給展望 (단위：百萬噸)

	1985年	1990年
供給	39.3~41.1	41.0~47.2
O P E C	36.1~37.4	37.3~42.5

其 需	他 要	3.2~3.7	3.7~4.7
西 美	欧 国	2.0~3.0	2.7~5.5
日 本		4.8~9.8	9.5~16.1
其 他		16.0~19.0	22.0~23.0
過 剩(不足)		1.2	1.3
		6.3~17.1	11.7~(4.9)

資料: Petroleum Economist, May 1981. pp. 211

III. 石炭市場

1. 安定勢 回復

○폴란드事態 및 輸送問題 惡化로 市場危機가 高潮되어 왔으나, 輸送 및 供給增大問題 解決을 위한 生産国과 消費国間의 共同努力으로 安定勢回復

—日本은 美国 西部沿岸과 알라스카石炭 共同開發

—石炭 現物市場價格 5月以来不變

* 原料炭(美国東部産): 45~50 달러/톤, 一般炭: 32~36달러/톤

2. 石炭의 增産 및 消費擴大 努力

○各國의 生産, 輸入 基地建設 推進

—美国: 72日間 끌어온 石炭勞組 罷業 協商에 의해 妥決.

行政政府의 石炭輸出 增大를 위한 輸送施設 擴充 및 石炭輸出에 대한 規制·節次簡素化

—日本: 1990년까지 3千億엔을 投入하는 石炭輸入 基地建設 5個年計劃 樹立

—濠洲: 現在 輸出能力 70百萬噸/年인 港灣施設을 1983년까지 2倍로 擴充할 計劃

폴란드: 今年 5個月間 当初予想보다 3.3百萬噸 招過한 68.8百萬噸 生産

—소련: 今年에 시작되는 5個年計劃期間中 7~12% 增産計劃

IV. 核에너지市場

○核安全問題와 우라늄의 供給確保 問題 未解決

○美国을 비롯한 대부분의 國家들의 核發電에 대한 關心은 增加되고 있으나 프랑스는 「미테랑」 政府의 出帆으로 計劃이 修正되고 있음.

○核技術開發에 대한 國家間協力 增大.

—아랍國家들은 共同으로 原子力 發電所 建設計劃

V. 主要地域別 에너지動向

1. 美 国

○石油價格 凍結解除와 天然가스價格 凍結解除 予想으로 石油 및 가스의 深查活動이 記錄의 水準에 달하였음.

—6月初現在 試錐孔數가 3,858個로 前年同期比37.9% 增加

○1977年以後 財源調達問題로 膠着狀態에 빠졌던 北美閩通「파이프 라인」建設契約 妥決

— 予想建設費: 150~250億달러

○大型原油輸送船(VLCC) 接岸을 위한 深海港(Deep-Water Port) 이 完工段階에 있음

2. 유럽地域

○달러貨強勢로 實質原油輸入負擔 20~30% 增加

○美国은 西歐의 對蘇에너지 依存度 增加에 대해 깊은 憂慮 表明

○소련: 1985년까지 石油輸出 可能

○프랑스: 「미테랑」 政府出帆과 함께 原子力發電所 및 太陽에너지 計劃 後退

3. 中東 및 아시아地域

○日本: 美国과의 에너지資源 共同開發 움직임 활발

* 美西部沿岸 石炭 및 알라스카 油田과 石炭에 대한 共同開發 —海水로 부터의 우라늄抽出技術 開發

—石炭輸入 基地建設 5個年計劃 樹立

○인도네시아: 既存의 埋藏石油 枯竭에 대비하기 위한 石油·가스 深查와 石炭開發, 및 代替에너지 開發에 대한 關心增加

—世界銀行은 1985年頃에 인도네시아가 純石油輸入國으로 反轉될 것이라고 展望

○이란: 強硬派의 得勢로 石油輸出을 增大시키라는 壓力이 加重되고 있음.

—戰費調達, 財政赤字解消 (1980年에 90億달러)를 위해 現在 1.0百萬B/D水準인 石油輸出을 2.5百萬B/D로 擴大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台頭

○쿠웨이트, 시리아등: 이스라엘의 이라크原電 爆擊事件後 對美禁輸 促求, 사우디는 소련의 介入을 憂慮, 이스라엘에 대한 非難에 葛침

○페灣共同體創設(GCC: Gulf Cooperation Council)

—會員國: 사우디아라비아, 쿠웨이트, UAE, 오만, 카타르, 바레인으로 6個國

—目的: (1) EC에 匹敵하는 經濟, 社會, 政治協力を 위한 地域共同體로 發展

(2) OPEC 내에서 영향력을 增大시키고 있는 시리아, 리비아 南예멘, 알제리아 PLO 등에 對峙

—60億달러에 달하는 共同基金設立 提案

—5月 26日 아부다비에서 最初會議 開催 *